

영광 한빛원전, 공사기간 단축하려다 부실공사 자초

국내 원전 22호기 중 2016년 이후 발견된 전체 방호벽 구멍 94% 차지

이재호 “국내원전 가운데 안전성 가장 취약...이유 대책 밝혀야”

국내 원전 22호기에 대한 안전 점검결과 현재까지 발견된 방호벽 공극(구멍) 건수의 94%, 내부철관(CLP) 부식건수의 60%가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발생의 원인이 공사 발주사인 한수원(당시 한전)이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부실공사를 자초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조사가 확대될 경우 부실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수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CLP 부식 및 공극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 2호기에서 CLP 부식이 최초 발견된 2016년 6월 이후 전 원전(총 22기)에 대한 확대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CLP 부식이 777개(10기), 공극이 295개(8기) 발견돼 한수원이 조치 중이다.

문제는 원전에서 발견된 295개 공극 중 94.2%인 278개가 한빛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에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이 245개에 이른 다.

CLP 부식의 경우 발견된 777개 가운데 한빛원전에서 469건이 발견됐으며 1,24호기에서 발견된 부식건수가 무려 467건, 60%에 달해 한빛원전의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극이 한빛원전에서 집중적으

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 원전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부실과 함께 △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강재를 제거하지 않고 공사를 하도록 설계변경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설계변경을 요청한 당시 발주사인 한수원(당시 한전)과 기술적으로 이를 허락한 한국전력기술이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이 확보한 1990년 11월 21일 당시 ‘현장설계변경요청서’(FCR)에 따르면 한전이 보강재를 제거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바로 다음날 설계를 맡은 한국전력기술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CLP의 경우도 원전 운영기간 중 부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실시공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호 의원은 “격납통은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 외부유출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며 특히 CLP는 원래 원전 설계를 할 때 원전수명

과 함께 해야 하는데도 부식과 공극이 1000여 군데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다른 원전은 모두 보강재를 제거하고 타설했는데 한빛 3,4호기만 보강재를 그대로 두고 공사

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빛원전 전체에서 공극과 부식이 유독 많이 발견되는 이유와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민들의 안전우려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겨울 대파 최대 생산지’ 진도군, 수급안정 대책 ‘주력’

농업인 등으로 추진단 구성해 소득창출 방안 마련



겨울 대파 최대 생산지인 전남 진도군이 대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행정, 농협, 농업단체, 산지유통인, 겨울대파 재배 선도농업인 등으로 겨울 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대파 수급, 가격 동향, 향후 전망 등 관측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고품질 대파 생산,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방안 논의 등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계약 재배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에는 대파가공상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진도올금대파김치, 대파피클 상품을 출시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촉진을 통한 수급안정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2019년산 진도 겨울대파의 경우 1137ha로, 전국 겨울대파 재배면적의 약 35%를 차지한다. 특히 진도는 연간 5만여 톤의 겨울대파를 생산하는 최대 생산지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향후 대파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급조절물량 확보, 가공 상품 개발 및 업체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광주·전남5개 상의 “한전공대 설립 반드시 필요”

에너지신산업 분야 세계시장 선점·기술경쟁력 확보

광주와 전남지역 5개 상공회의소는 7일 “에너지신산업 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공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주·전남지역 5개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상의는 성명에서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에너지밸리 선순환을 이끌 특화대학 설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세계 IT산업을 견인하는 것처럼 한전공대는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 경제인들은 한전공대에 거는 호남인들의 지지와 열망을 함께 한다”며 “지금은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인재육성에 국민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전은 미래 기술력 확보 및 국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한전공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전공대 설립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국가발전이라는 대의에서 깊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정치권 모두 앞장서서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뜻에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며 “과거 포항공대나 울산과기원도 설립 당시 지방대학 신설에 대한 강한 반대 논란을 극복하고 지금은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봉우 기자

한글날 휴무로 다음 호 11일자 발행합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19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

humanity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9.7-10.31

행사장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재)광주디자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암미술관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디자인센터